



'야근의 패러독스?'



야근의 패러독스란 말이 있다.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야근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야근을 한 다음날 오전을 멍한 상태로 보낸다. 간밤에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을 먹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다. 간밤에 못 잔 잠이 식곤증으로 풀려온다. 그나마 오후 늦게 일에 집중하지만 그 몇 시간만으로는 하루 업무량을 채우진 못한다. 또 다시 야근이다. '근무시간=성과'로 여겨는 경영자들은 이런 직원들을 보며 흐뭇해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근무형태는 잘못된 것이다. 21세기는 노동시간이 바로 생산량과 직결되는 농업사회나 산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질, 바로 창의력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업무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킹'이 주목받고 있다. KT는 얼마 전 분당에 스마트워킹센터를 마련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고, 삼성이나 SK 등의 대기업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바로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했다. 스마트워킹에는 원격근무센터와 모바일워크 외에도 탄력시간 근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정부도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 전체 노동인구의 30%가 스마트워킹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워킹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곁화·저출산이라는 시대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은 20대 후반 65%에서 30대 초반으로 가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일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센터는 이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는 이공이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사회적 참여도 늘릴 수 있다. 기업에도 이익이다. 건물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줄어들어 차량 운행거리가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선진국에선 스마트워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워킹의 대명사로 꼽히는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은 전 직원의 80% 이상이 유연 근무제도를 활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체 사업체 중 약 50%가 원격근무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원격 근무자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 역시 스마트워킹을 통해 교통문제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공동으로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역시 올해까지 원격근무자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킹 보급률은 1% 미만이다. 스마트워킹 도입에 필요한 유무선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이는 스마트워킹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무시간=성과'라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화에 따른 관계 단절과 조직관리의 어려움, 기업 보안 문제 등을 지적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정기적인 모임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보안 문제 역시 기술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다고 한다.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면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방송기술저널은 개원을 맞아 문화면을 신설하고, 다양한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실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감상한 책이나 영화, 잊을 수 없는 맛을 지닌 먹거리,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멋진 여행지 등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해주세요. journal@kobeta.com으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방송기술저널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천 도서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이 책을 발견한 것은 철지난 사회과학서적을 펴기로 파는 온라인 서점의 행사에서였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20세기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던 '영어를 공용어로 제정하자'는 소설가 북거일 씨의 주장(국제어시대의 민족어/문학과학지성사/1998)이 실현되었다는 가정하에 500년의 미래 한국사회를 상상해보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사회과학 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지적 시점의 소설에 가까운 워보인다는 것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23년을 영어공용화의 원년으로 가정하고, 이후 30년, 60년, 100년, 500년의 다섯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마치 SF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각 시점에서의 사건을 간추리면 이렇다. 2023년에는 영어시간이 곧 국어시간이 되고, 관공서/매체가 너도나도 앞다투어 영어를 사용하게 되며, 영어와 함께 영미권의 문화가 순식간에 한국문화를 잠식하게 된다. 이어 한세대가 흘러간 2053년, 영어공용화 세대인 아이들은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한국어보다 학교/친구들 사이에서 훨씬 자주 접하는 영어가 더욱 편하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첫번째가 세대간의 단절, 두번째가 한국전통의 상실이다. 다시 30년이 지난 2063년, 영미권의 경제와 문화수준을 쫓아가기 위해 영어공용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 세대의 단절, 문화적 정체성 상실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경제/문화적 차이의 관건은 영어의 사용이 아니라, 국지적 특수성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발휘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제 2123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아성은 점차 줄어들고 신흥강국으로 중국이 득세하게 되면서 '중국어공용화론'이 힘을 얻는다. 이때 한국사회의 풍경은 21세기 초의 영어열풍이 불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시 400년이 흐른 2523년, 우연히 한국어문법이 보관된 타임캡슐이 발견되어 한국어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책의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500년 후의 상황을 한국어의 영속성을 바라는 희망의 대담원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네 시점은 전혀 허황되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로, 영미 문화가 한국의 문화를 잠식한다는 가정, 조선 말기 일부 개화파들에 의해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이후 나라말을 잃으면서 전통이 단절되었던 시절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대간의 단절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 해방이후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서구문화와 전통문화간에 격렬한 충돌이 생겼던 경험과 무척 닮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책의 부록으로, 2003년 당시 벌어진 열띤 찬반논쟁의 자료들도 정리해두어서, 단순한 상상에 입각한 비판적 논리 이외에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이 책의 출간시점은 2003년 이므로 '영어공용화'라는 특정주제에 대한 시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8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영어교육은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아직도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크다고 본다.

눈먼 자들의 도시



지금 바로 눈을 감고 자리에서 일어나보자. 그리고 곧장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잔 마신 후에 불병을 도로 제자리에 두고, 이번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후에 다시 PC 앞으로 돌아와보자. 생각만해도 답답하

신가? 해보지 않아도 지나간 흔적이 온통 어지럽혀질게 예상되는가? 무모한 필자, 위에 적은 대로 실행해봤다. 다녀오는데 5분정도 걸렸다.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는데 잠깐 5분. 그것도 속속들이 구조를 알고 있는 자기 집안에서, 겨우 두가지 임무만 성공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일이었다. 거기다 그 두가지 일도 깔끔하게 처리 못하고 여기저기 어지럽혀 놓았다.

그런데 당신이 길을 걸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은 채, 언제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 공포 무한증가의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소설 속에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이내 자신의 고상함과 자존심 따위를 잊어버리고 이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한다. 편한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쉽게 폭력이 오간다. 때로는 알량한 권력이 등장하여 남을 굴종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중지란에 빠져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굳이 눈이 멀지 않은 우리 모습도 이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비싼 집에 살기 위해 분양사무소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한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자에게 불균등한 처우를 제공하기도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대신 시기하고 음모하여 생체기를 남긴다.

그러기에 이 소설은 분명 현대인을 향한 우화다.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는 표면적인 질문일 뿐 실상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우리는 이미 욕망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club.kobeta.com
- 방송과기술 magazine.kobeta.com
- 방송기술저널 journal.kobeta.com
- 모바일 방송기술저널 m.kobeta.com